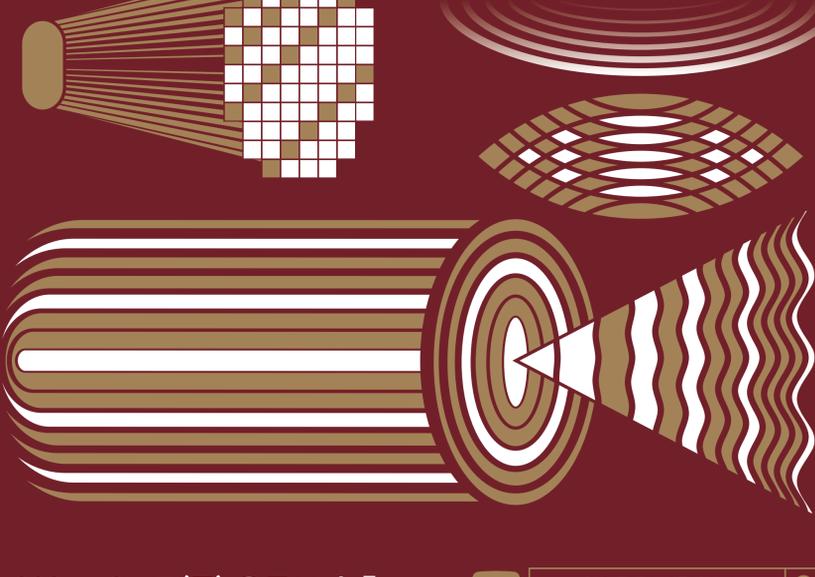


미술시장과 온라인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ART MARKET GOING ONLINE : CHANGES,
CHANCES,
AND CHALLENGES



2021. 12. 17.(금) 유튜브 송출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주관



공동기획



meetingroom
이경민 미술시장 연구팀 디렉터

번역협찬



2021년 'KAMA 컨퍼런스'에서는 팬데믹 이후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된 온라인 미술시장의 움직임과 새로운 소비자층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올 한해 미술시장 키워드로 급부상한 NFT와 메타버스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전방위적으로 디지털화된 미술시장에서 데이터의 보안과 손실, 디지털 산업이 촉발한 환경위기, 디지털 아트마켓과 관련한 법적 제도와 경제 전망을 논의하며 온라인 미술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고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전신청 방법

- 이벤터스 www.event-us.kr 와 온오프믹스 www.onoffmix.com 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 또는 'KAMA'검색

이벤터스
사전신청 바로가기

온오프믹스
사전신청 바로가기

- * 본 프로그램은 라이브가 아닌 사전녹화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 * 이벤터스와 온오프믹스를 통해 사전접수를 하시면 행사 전 온라인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를 통해 사전신청 및 설문조사를 완료하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 김소정 02-2098-2923 / camkim@gokams.or.kr

프로그램

* 발제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p>세션 1 온라인으로 이동한 미술시장과 컬렉터</p> <p><i>Transition to Online: The Art Market and Collectors</i></p>	<p>온라인 미술시장에 관한 세 가지 신화 Three Myths About the Online Art Market</p> <p>컬렉터 트렌드 2.0 Collector Trends 2.0</p>	<p>팀 슈나이더 <i>Tim Schneider</i> 아트넷 뉴스 아트 비즈니스 에디터, 더 백룸 및 그레이 마켓 칼럼니스트</p> <p>멜라니 게를리스 <i>Melanie Gerlis</i> 파이낸셜 타임즈 미술시장 전문 기자</p>
<p>세션 2 미술시장 속 NFT와 메타버스</p> <p><i>How NFT and Metaverse dissolved in the Art Market</i></p>	<p>아이부터 부모까지: 모두를 위한 NFTism! From Babies To Boomers: NFTism is Not Just for Kids!</p> <p>NFT 미술시장 플레이어 Players in the NFTs Art Market</p>	<p>케니 섉터 <i>Kenny Schachter</i> 미디어 아티스트, 큐레이터, 취리히대학교 대학원 강사</p> <p>이경민 <i>Lucida Kyungmin Lee</i> 미팅룸 미술시장 연구팀 디렉터</p> <p>린제이 하워드 <i>Lindsay Howard</i> NFT 아트 플랫폼 파운데이션 커뮤니티 총괄</p> <p>마이클 코너 <i>Michael Connor</i> 디지털 아트 기관 라이즈 예술감독</p> <p>캐슬린 김 <i>Kathleen E. Kim</i> 법무법인 리우 미국 변호사</p>
<p>세션 3 온라인 미술시장의 지속 가능성</p> <p><i>Seeking Sustainability: Art Market in the Online Habitat</i></p>	<p>디지털 아카이브와 재난 Digital Archives and Disasters</p> <p>블록체인 환경을 사용하는 예술가들 Artists Reflecting Blockchain's Environment</p> <p>디지털은 어떻게 탄소 발자국 절감을 돕거나 방해하는가? How Can Digital Help and Hinder Us in Meeting the Goal of Reducing our Carbon Footprint?</p>	<p>지가은 <i>Gaewn Ji</i> 미팅룸 아트 아카이브 연구팀 디렉터</p> <p>샬롯 켄트 <i>Charlotte Kent</i> 몽클레어주립대학교 아트앤디자인 부교수</p> <p>빅토리아 시달 <i>Victoria Siddall</i> 프리즈 보드 디렉터, 갤러리현장연합 창립 멤버</p>
<p>온라인 미술시장을 둘러싼 제도와 정책 Systems and Policies Around the Online Art Market</p>	<p>모데레이터 심지연 <i>Jieon Shim</i>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p> <p>패널 토론 이재경 <i>Jaekyung Lee</i> 건국대학교 교수, 변호사</p> <p>채상미 <i>Sangmi Chai</i>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p> <p>이정봉 <i>Bong Lee</i> 서울옥션블루 대표이사</p>	

연사 소개

<p>팀 슈나이더 <i>Tim Schneider</i> 아트넷 뉴스(ArtNet News)의 아트 비즈니스 에디터, 팟캐스트 아트 앵글(The Art Angle)의 공동 프로듀서, 그레이 마켓(Grey Market)의 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학, 테크놀로지, 데이터 분석 및 관련 주제의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갤러리 분야에 관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접목하고 있다. 아트 바젤의 '컨버세이션' 및 '토크 갤러리' 심포지엄 등 다양한 패널 토론 행사에 참여하였다.</p>	<p>멜라니 게를리스 <i>Melanie Gerlis</i> 《파이낸셜 타임즈》의 주간 미술시장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아트 뉴스페이퍼》 선임 기자, 런던 핀즈베리 재우 커뮤니케이션 담당 고문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2014년 출간된 『투자 수단으로서의 예술? (Art as an Investment?)』가 있다. 새로운 저서 『아트페어 스토리: 롤러코스터 라이드(The Art Fair Story: A Rollercoaster Ride)』는 2021년 12월 출간될 예정이다.</p>	<p>케니 섉터 <i>Kenny Schachter</i> 미디어 아티스트, 큐레이터, 아트 디렉터이자 아트넷 뉴스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취리히대학교 대학원, 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뉴욕), 뉴욕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아트에 수년 동안 관심을 가졌던 그는 콜롬비아-드라클러 갤러리에서 최초의 피지탈(phygital: 물리적, 디지털 요소의 결합) NFT 단체 전시를 기획했으며, 2021년 아트 바젤에서 해당 갤러리 부스를 NFT 작품으로 기획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도쿄의 블룸엔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선보일 예정이다.</p>
<p>이경민 <i>Lucida Kyungmin Lee</i> 갤러리현대 전시기획팀에서 근무했고, 『월간미술』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미팅룸의 미술시장 연구팀 디렉터로, 국내외 미술시장 주체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매체와 기관을 통해 글을 기고하고 강의해왔다. 공저로 『세어 마: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스위밍포, 2019)과 『세어 마: 재난 이후의 미술, 미래를 상상하기』(선드프레스, 2021)가 있다.</p>	<p>마스터 미상 <i>Mr. Misang</i>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디지털 크리에이터이다. <Modern Life is Rubbish> 연작을 중심으로 가상의 세계를 확장하고 있고, NFT화한 이 연작 일부가 수퍼레이에서 약 5억 원에 낙찰되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2021년 말, 고스트프로젝트(GhostsProject) 라는 PFP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p>	<p>주연화 <i>Henna Joo</i> 아라리오갤러리 총괄디렉터이자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법인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술학과 경영대학원에서의 문화예술경영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이사이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가격 심사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p>
<p>요한 쇠닉 <i>Johann König</i> 요한 쇠닉은 기업가이자 예술 매개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가 2002년 설립한 쇠닉 갤러리는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갤러리로 꼽히며, 런던, 서울, 빈 등에 분점을 운영한다. 현재 가상 갤러리 공간인 '쇠닉 디지털'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MISA'를 운영 중이다. MISA의 세 번째 에디션은 첫 NFT 마켓플레이스와 함께 론칭되었다.</p>	<p>크리스티아나 보일 <i>Christiana Boyle</i> 페이스 갤러리(Face Gallery) 온라인세일즈 디렉터이다. 리안 머핀 (Lehmann Maupin), 가고시안(Gagosian) 갤러리 세일즈 직책을 역임했다.</p>	<p>린제이 하워드 <i>Lindsay Howard</i> NFT 판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Foundation)의 커뮤니티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 키스타터, 뉴하버 등 크리에이티브 중심의 여러 테크 플랫폼을 개발해 예술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연결했으며, 가치 평가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디지털 아트에 폭넓게 다루며 집필과 강연도 진행했다.</p>
<p>마이클 코너 <i>Michael Connor</i> 마이클 코너는 라이즈의 예술감독으로, '넷아트 앤솔로지(Net Art Anthology)' 이니셔티브를 감독한 바 있다. 웹 기반 전시와 갤러리 전시, 책으로 기획된 이 이니셔티브는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100점을 통해 온라인 예술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코너의 글은 『유 아 히어: 아트 애프터 인터넷(You Are Here: Art After the Internet)』(코너하우스), 『디지털 비디오 추상(Digital Video Abstraction)』, 『MBCBFTW』(해체 칸트) 등 다수의 서적에 실리기도 했다.</p>	<p>캐슬린 김 <i>Kathleen E. Kim</i> 법무법인 리우 소속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경영학회 국제분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글로벌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예술법』(학고재, 2013 초판, 2021 개정판)이 있다. 2017년부터 NFT 및 메타버스와 예술 산업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다.</p>	<p>지가은 <i>Gaewn Ji</i> 미팅룸의 아트 아카이브 연구팀 디렉터로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아카이브 아트를 주제로 시각문화학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미술관, 비엔날레 등에서 전시 기획자로 근무했으며, 미술시장과 정책, 국제교류 등에 대한 글쓰기와 연구, 강의를 하고 있다.</p>
<p>샬롯 켄트 <i>Charlotte Kent</i> 샬롯 켄트 박사는 미국 뉴저지의 문화유산 연구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예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의 영향 및 부조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p>	<p>빅토리아 시달 <i>Victoria Siddall</i> 빅토리아 시달은 프리즈의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부터 프리즈의 일원으로 활약해 온 그녀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글로벌 디렉터로 일한 바 있다. 갤러리 기후 연합(Gallery Climate Coalition, GCC)의 창립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p>	<p>심지연 <i>Jieon Shim</i>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이다. 홍익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이다. 미술관, 비엔날레 등에서 전시 기획자로 근무했으며, 미술시장과 정책, 국제교류 등에 대한 글쓰기와 연구, 강의를 하고 있다.</p>
<p>이재경 <i>Jaekyung Lee</i> 변호사이자 건국대학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학사,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미술법, 조세법)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런던 시티대학교에서 문화정책석사(M.A)를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선재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법률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p>	<p>채상미 <i>Sangmi Chai</i>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이자 블록체인 경영학회 국제분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기획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p>	<p>이정봉 <i>Bong Lee</i> 서울옥션블루 대표이사과 엑스바이블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전 서울옥션총괄 고문, 가나아트뉴즈 대표직을 역임하였다.</p>

2021년 7회를 맞는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컨퍼런스(KAMS Art Market & Appraisal Conference, 이하 KAMA 컨퍼런스)'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의 대표적이던 국제 행사입니다. 2015년 '아트북과 카탈로그 레조네'를 시작으로 '법률과 유통 시장', '보존과 위생', '테크놀로지 아트 하츠로', '디지털 아트 아카이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매해의 주요 이슈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와 전문가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미술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진단하고 담론을 공유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